

[제2017-57호]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보 도 자 료		LA한국문화원 www.kccla.org 550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Tel (323)936-7141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
배포일시	2017.8.1 (화)	담당자	Tammy Chung 323-936-3015

2017 ARI Project <남요 南謠, Song of the South> 공연

남요 南謠, 남녘의 노래



- ▶ 공연명 : 2017년 공연작품 공모전 「2017 ARI Project」
남요 南謠, Song of the South
- ▶ 일시 : 2017년 8월 10일 목요일 오후 7시30분
- ▶ 장소 : LA한국문화원 3층 아리홀
- ▶ 주최 : LA한국문화원, 우리소리
- ▶ 온라인 예약 : www.kccla.org
- ▶ 첨부자료 : 공연 포스터 및 사진자료 등 각 1부
- ▶ 공연문의 : LA한국문화원 323-936-3015 공연담당 Tammy Chung

LA한국문화원(원장 김낙중)은 2017년 공연작품 공모전 「2017 ARI Project 일곱번째 무대로 우리소리 (대표 김원일)과 함께 <남요 南謠, Song of the South> 공연을 8월 10일(목) 오후 7시 30분 문화원 3층 아리홀에서 개최한다.

<남요 南謠, 남녘의 노래>라는 주제를 담은 이번 공연은 판소리꾼 정신예(운초판소리보존회 이사)와 대금연주자 이화동(전북대 교수), 권호윤(성남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등 한국중견예술인들과 한국전통 국악을 현지 주류사회에 알려온 김원일(우리소리 대표) 및 우리소리 단원, 고수희무용단 등 미주지역 국악인들이 함께 참여한다.

공연에서는 단가 수궁가 ‘고고천변’을 전원이 복장단과 함께 하는 때창으로 시작하여, 판소리 심청가 중 ‘심봉사 눈뜨는 대목’, 남도민요 ‘새타령, 농부가’, 춤 ‘교방 장고춤’, 판소리 수궁가중 ‘토끼 수궁에서 나오는 대목’, 창작민요 ‘배 띄워라, 홀로아리랑, 남도벚노래’, 춤 ‘교방 살풀이’, 대금산조, 남도민요 ‘육자배기, 흥타령, 성주풀이, 진도아리랑’, 등 판소리와 남도민요를 중심으로 한 여름의 열기를 한의 소리의 열기로 바꾸는 공연 프로그램으로 다채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공연에 참가하는 정신예씨는 오정숙명창으로 부터 동초제 판소리 5바탕과 조통달 명창으로부터 미산제 판소리 2바탕을 사사한 재원으로 제1회 전국판소리 경연대회 대상과 19회 남도민요경창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전북대학교 한국음악대학 이화동교수는 한국과 해외에서 수많은 독주회와 작곡 발표회를 하였으며 대통령 표창장을 수여받은 대금연주자이다.

공연을 기획한 김원일 대표는 “이번 공연은 전통 판소리 뿐만 아니라 남도민요의 정수인 육자배기, 흥타령, 진도아리랑, 현대 창작 민요 남도벚노래, 배 띄워라, 홀로 아리랑을 연주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한국 남도민요와 판소리를 즐기실 수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라고 밝혔다.

김낙중 문화원장은 “한국 국악을 향한 열정과 한국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미국과 한국 등에서 활동하는 국악인들이 함께 마련한 공연무대라서 더욱 뜻 깊고, 많은 분들이 이번 공연을 찾아주셔서 우리소리의 멋과 흥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공연의 관람 및 참가는 무료이며, 사전에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약을 해야 한다.

**2017년 공연작품 공모전 <2017 ARI Project>는 공모를 통해 공연단이 LA현지 관객을 대상으로 우수한 공연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LA한국문화원 대표 공연프로그램이다. 올해에도 클래식, 무용, 국악, 인형극, 재즈, 탈춤, 궁중다례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16회 선보일 예정이다.*

"남요 南謠, Song of the South" (프로그램 / 출연진)

1. 단가 수궁가 중 “고고천변” 우리소리
한종성, 한현주, 양영, 박미셀, 강수빈, 이경희, 유미선, 크리스티 전, 김원일
2. 판소리 심청가 중 “심봉사 눈뜨는 대목” 정신예, 교수 김원일
3. 남도민요 새타령, 농부가 우리소리, 교수 김원일
한종성, 한현주, 양영, 박미셀, 강수빈, 이경희, 유미선, 크리스티 전
4. 춤 교방 장고춤 고수희 무용단
고수희, 최베로니카, 황수지, 발데즈 경희
5. 판소리 수궁가 중 “토끼 수궁 나오는 대목” 김원일, 교수 한종성
6. 창작민요 배 띄워라, 홀로아리랑, 남도벚노래 정신예, 우리소리
한종성, 한현주, 양영, 박미셀, 강수빈, 이경희, 유미선, 전 크리스티
키보드 조혜경, 드럼 김우연
7. 춤 교방 살풀이 고수희 무용단
고수희, 최베로니카, 황수지, 발데즈 경희
8. 대금산조 이화동, 교수 권호윤
9. 남도민요 육자배기, 흥타령, 성주풀이, 진도아리랑 정신예, 우리소리
한종성, 한현주, 양영, 박미셀, 강수빈, 이경희, 유미선, 전 크리스티
대금 이화동, 장구 권호윤, 북 김원일

The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공연단 소개>

우리소리(OUR VOICE)는 남도민요와 판소리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남가주에 2010 년에 설립되어 매년 정기공연을 9 회째 해오고 있는 판소리 단체이다. 강사 김원일은 본국의 판소리 전수조교 조통달 명창을 사사하여 미산제 흥보가를 미주 최초로 완창하고 현재 수궁가 완창을 준비중이다. 우리소리는 매년 남도민요 무료강좌를 현재 7 회째 진행해 오고 있으며 이제까지 약 300 여명이 강좌를 거쳐갔다. 현재 약 20 여명이 5 년여 동안 땀흘리며 판소리를 연마하고 있다. 이제 우리소리는 판소리와 남도민요를 미주류사회에 전파하기 위하여 영어권을 위한 판소리 번역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끝/